

“대상 가수만 6팀” SM타운, K팝의 과거-현재-미래



무려 4시간이 넘는 공연이었다. 그럼에도 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들지 못한 히트곡이 떠올라 아쉬웠을 뿐. 약 4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은 그렇게 K팝으로 하나가 됐다.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6 in 서울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강타, 보아, 동방신기 유노윤호,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무대를 꾸몄다.

서울 공연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 오래 기다린 국내 팬들을 위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무대가 이어졌다. 무대를 꾸민 가수들 중 대상 가수만 6팀이었다. 먼저 아이돌 시대의 첫 문을 열었던 H.O.T. 출신의 강타가 본보기를 보

였다. 이날 강타는 슈퍼주니어 예성과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인 ‘꼭지’를 함께 불렀다. ‘꼭지’는 강타가 작곡과 작사를 했으며 발매 당시 예성이 불렀던 노래. 두 사람의 감성 넘치는 컬래버레이션이 공연의 분위기를 더했다.

또 다른 대상 가수 보아는 ‘카모(CAMO)’ 프로젝트 무대를 선보였다. 앞서 ‘카모’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지만 무대를 보여준 것은 이날이 처음. 색다른 시도와 변신을 선보이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답게 보아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압도했다.

2000년대 중후반 술한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는 어느덧 군대를 제대한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4월

전역한 그는 신곡 ‘드롭(Drop)’을 최초 공개했다. 아쉽게도 최강창민이 군 복무 중이라 혼자서 무대를 꾸몄지만 존재감은 대단했다.

유노윤호는 “혼자 무대에 서려니 많이 떨린다”며 “장민이가 형의 느낌을 다 보여주려다”라고 전했다. 당부대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 바지가 찢어지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의상을 갈아입고 올 시간을 달라”며 노련하게 대처했다. 이후 ‘주문’, ‘왜’, ‘점비더 투 러브(Somebody To Love)’ 리믹스 무대를 선사했다.

그런가하면 팬들의 마음을 잔하게 만드는 시간도 있었다. 한 때 가요계 최다 멤버수를 자랑했던 슈퍼주니어의 차례였다. 다만 이날 무대에는 네 명의 멤버만이 올 수 있었다. 각각 보이콧과 지속적으로 활동

강타·보아·유노윤호·소녀시대·슈주 등 약 4만 5천여 명의 관객들 K팝으로 하나돼

을 중단한 성민과 강인, 군복무중인 시원, 은혁, 동해, 규현, 러욱을 제외한 신동, 이득, 예성, 희철이었다.

강타와 듀엣을 한 예성, UV와 호흡을 맞춰 ‘메리 맨(Mary Man)’, ‘히타워 프리덤’을 부른 신동, 엑소 백현과 ‘나비집’을 열창한 희철까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멋진 무대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가장 빛난 것은 역시나 슈퍼주니어의 무대이었다.

네 명의 인원으로도 ‘소리 소리’, ‘미인아’, ‘매직(Magic)’의 무대를 소화했다. 무대 중간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희철은 “4명에서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예성은 “끝까지 지켜주는 엘프(슈퍼주니어 팬클럽),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득은 “반 데 가지 말아 달라”고 진심을 전했다.

소녀시대는 곧 있을 10주년을 미리 자축했다. 먼저 태연과 효연은 각각 솔로곡 ‘레인(Rain)’과 ‘워너비(Wannabe)’를 불렀다. 이후 완전체로서 ‘꽃’, ‘파티(PARTY)’, ‘지(Gee)’, ‘라이온 하트(Lion Heart)’를 부르며 걸그룹으로서 쉽지 않았을 지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컴백도 다시 예고했다. 태연은 “올해 소녀시대가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10주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티파니는 이어 “기념일에 맞춰서 곧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대 많이 부탁드린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중현과 태민은 솔로 가수로 키는

‘중독’, ‘로또(Lotto)’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물론, ‘나비소녀’로 서정적인 감성까지 더해져 삼압을 뜨겁게 달궜다.

백미는 ‘몬스터(Monster)’ 무대 전 공개된 티저였다. 엑소는 더 워 코코팝(The War KO KO BAP)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신곡 티저를 공개했다. 앞서 컴백한 NCT, 레드벨벳에 이어 여름 가요계를 강타할 ‘끝판왕’의 등장을 예고한 것. 5년 연속 대상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졌다.

이날 공연 도중에 비가 오고 그치는 일이 계속됐음에도 팬들의 열기는 한결 같이 뜨거웠다. 추위축이 미리 나눠준 우비를 입고 가지각색 야광봉을 흔들었다. 가수들은 이에 대해 완성도 높은 무대로서 화답했다. 엑소 수호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대로, 세대와 성별에 상관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SM 측에서도 콘서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2008년 첫 투어를 시작한 이래로 누적 관객수 155만 명을 돌파한 저력을 보였다. 95m 크기의 분부대가 포함된 총 223m 길이의 초대형 무대와 객석 바로 앞에 설치된 80m 크기의 서브 무대, 이동식 무대 등으로 관객들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했다.

엔딩곡은 늘 그랬듯이 H.O.T.의 ‘빛’이었다. 1998년에 발매된 이 노래를 원곡가수인 강타와 1999년생 마크가 함께 부르며 K팝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모두 아울렀다.

한편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6 in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5~16일 일본 오사카 요세리돔, 27~28일 도쿄 도요콜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웃음 지뢰”... ‘무도’ 박명수는 밟을수록 크게 터진다



‘무한도전’의 웃음지뢰다. 박명수는 밟을수록 크게 터지는 캐릭터. 프로그램 속 그는 악역을 담당. 학파로 불리기도 하지만, 당할수록 큰 웃음이 터지는 오묘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모든 미션에 1번 타자로 등 떠밀리며 ‘고유명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웃음 사냥꾼으로 잘못 부활하며 역대급 큰 웃음을 안겼다. 마음만 앞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모습에 시청자들의 웃음이 빵빵 터졌다. 멤버들이 애써 웃음을 참는 모습은 코믹한 분위기를 더하기도.

‘진짜사나이’ PD들의 고정픽 멤버다운 활약이었다. 앞서 박명수는 ‘무도 드림’ 경매 리브콜을 받은 바. 이에 방송 전부터 그의 활약에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쏠려 있었다. 기대는 민족을 채우고도 남았다

는 평. 박명수는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레전드로 남을 장면들을 대거 연출했다. 지난주에 이어 비강스에 속은 멤버들이 훈련소로 향해 ‘진짜사나이’ 특집을 꾸리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 특히 그의 활약이 도드라졌다.

입소식에서부터 아주 빵방 터졌다. 마음만 앞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모습. “이해는 헤스 했는데요”라고 발음이 꼬이고, 입소가 아닌 ‘입주하게 되었습다’라고 외치는 등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소리쳐 웃었다. 다른 훈련병들은 교관의 불호령 속에서도 웃음을 참느라 고통을 받았다. 이 모습도 웃음 포인트였다.

본격적인 활약(?)은 이후부터 시작했다. 제식훈련에서도 박명수는 예상을 한지도 벗어나지 않는 버벅짐으로 구명 부대장에 등록했고, 결국 유체색이 지워질 말았다. 제력하던 시간에도 박명수는 단연 구명병사. 러닝은 입고 상의만 벗으라는 말에 박명수는 머뭇거렸다. 그 이유

는 홀로 러닝을 안 입고 온 것. 결국 박명수는 홀로 상의를 모두 탈의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샀다.

군가를 배우는 시간에도 웃음 지뢰는 쉬지 않고 터졌다. 가사를 마음대로 바꿔 불렀고 또 다시 훈련병들에게 웃음을 참아야 하는 고통을 선사한 것. 저녁 잠꼬대 보고 시간에 박명수는 “아이 캔 두 잇”이 아닌 “에스 아이 캔”을 외치는 실수로 웃음 폭탄을 터뜨렸다.

박명수의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시청률도 터졌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기준 14.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 방송분인 2.8% 포인트나 상승한 시청률 휴식기 이후 최고 시청률이자 올해 최고 시청률이었다.

그가 골방을 먹거나, 교생을 하는 모습은 ‘무한도전’의 웃음 포인트 중 하나다. 악한 역할을 자처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당하고 미는 ‘툼과 제리’의 ‘툼’과 같은 캐릭터. 그간 북극곰을 만나러 북극에 가거나 ‘극한 알바’에서 고층 빌딩 외벽을 청소하라는 등의 고된 기획을 도맡았던 이유도 여기 있다.

레드벨벳, ‘빨간맛’ 여름더위 날렸다



걸그룹 레드벨벳 그녀들만의 매력을 한껏 담은 여름 시즌송으로 돌아왔다.

레드벨벳은 9일 낮 12시 여러 음악 사이트를 통해 여름 미니 앨범 ‘더 레드 서머(The Red Summer)’를 정식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빨간 맛(Red Flavor)’을 포함, 총 5곡이 담겼다. ‘빨간 맛’은 레드벨벳의 에너지틱함이 돋보이는 업템포 장르의 댄스 넘버다. 멤버들의 상큼발랄한 매력과 날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SM 유명 프로듀서 켄지가 노랫말을 썼고, 해외 작곡가들이 참여한 시저(Daniel Caesar)와 루드윅 린델(Ludwig Lindell)이 함께 멜로디를 만들었다.

스 넘버다. 멤버들의 상큼발랄한 매력과 날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SM 유명 프로듀서 켄지가 노랫말을 썼고, 해외 작곡가들이 참여한 시저(Daniel Caesar)와 루드윅 린델(Ludwig Lindell)이 함께 멜로디를 만들었다.

‘빨간 맛’ 가사 일부로 열정의 계절 여름과 찌릿한 사랑의 감정을 빨간 색과 맛으로 그려낸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빨간 맛’은 멜로디와 사운드 측면에서는 여름 더위를 단번에 식혀줄 시원한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레드벨벳 표 여름 시즌송’인 셈이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음력 5월 17일)



▶**황소** 36년생 미련을 버려라.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우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사슴**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나아진다.49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황해의 락**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슴** 39년생 안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황해의 락**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황해의 락**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5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9년생 꿈을 접지마라.



▶**황해의 락** 42년생 가까이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손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황해의 락**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은 있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황해의 락**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황해의 락**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황해의 락**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황해의 락**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